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2주차. 이승만(1)
2강. 긍정적 평가(2)



학습 내용

1.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의 상비군 육성, 경제발전은?
2. 상비군 육성 및 경제발전 평가의 객관적·주관적 측면은?



학습 목표

1. 이승만 정권 하의 상비군 육성, 경제발전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.
2. 이 둘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, 그 정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해본다.



제2강 긍정적 평가(2)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나는 지금까지 상비군 육성, 경제발전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?
- 역사적 평가에 대한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할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?



3] 63만 명 수준의 상비군(army) 육성

상비군

- 정규군(正規軍)이라고도 함
- 평소부터 집단생활을 하고 엄격한 교육 · 훈련을 받으므로 단결심과 충성심이 강함
- 전술 · 무기도 비상비군에 비하여 월등
- 제대 후에도 예비전력이 될 수 있는 대신, 비용 면에서 그 규모가 제한을 받음
- 상비군은 고대 왕후(王侯)들이 자신의 경호를 위하여 거느린 호위병에서 비롯
- 중국이나 로마 제국에서도 존재



3] 63만 명 수준의 상비군(army) 육성

상비군

- 실제적인 전투 병력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징집하거나 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것이 상례
- 유럽에 절대군주제가 생기면서 용병(傭兵)으로 된 상비군이 출현하였으나, 소규모
- 자국의 정규병으로 된 근대적인 상비군이 나타난 것은 18세기
-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의 군대는 완전히 현역병으로 된 상비군으로 편성
- 일정 연한을 복무한 뒤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에 재 소집하도록 제도화



3] 63만 명 수준의 상비군(army) 육성

- ✓ 국군 증강, 장비의 현대화, 군 장교의 위탁 교육 요구
- ✓ 전쟁 발발 이전의 10만 명에서 휴전 당시 63만 명으로 증원됨
- ✓ 군사강국의 토대를 마련함



4]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

악성 인플레이션(galloping inflation)

- 물가가 매우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상
- 원래 의미는 ‘달음박질하는 인플레이션’으로 초(超)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함
- 물가상승의 속도가 완만한 크리핑 인플레이션(creeping inflation) 또는 마일드 인플레이션(mild inflation)과 대조되는 개념
- 악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쟁 전후로, 한정된 물자의 생산 밖에 없는 곳에 거액의 통화가 발행되는 것이 중요 원인



4]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

악성 인플레이션(galloping inflation)

-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,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, 한국전쟁 등의 경우
- 보통 악성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근로자나 금리 또는 연금생활자의 경우처럼 소득이 물가상승과 같은 속도로 따라 오르지 않는 사람이 손실을 입음
- 따라서 착실한 생산활동보다는 투기활동이 유리해지므로 경제의 건전성이 손상당하는 등의 폐해를 초래
- 이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화폐적 수요를 억제하여 생산과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함



4]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

☑ 만성적 인플레이션 극복

☑ 20억 달러 이상의 무상원조로 전후 경제복구에 일정 정도 기여

☑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한 공업화의 토대 마련



4] 경제발전의 토대 마련

수입대체산업

- 종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수요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, 공급하는 것을 수입대체라고 하고, 이러한 산업을 수입대체산업이라고 함
- 이것은 주로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루어짐

◆ 반론

➡ 경제적 종속



학습 정리

- ?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상비군 육성,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 등이 있다.
- ? 이런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,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.
- ?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 차원이 있다.

